

“폭포·바위·물...역사의 흐름 담았죠”

지난해 예술공간 '집'에서 만난 송필용 작가의 '백아산'과 '땅의 역사' 시리즈는 남도의 붉은 황토와 검은 산맥 등 꿈틀거리는 생명력이 압권이었다. 1990년대 작품을 30여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현재에 다시 만나도 그 생동감은 여전했다.

송필용의 작업은 이 땅과 역사에 대한 애정에서 출발했다. 민중과 역사에 대한 신뢰가 소나무, 땅, 물, 폭포, 바위 등을 소재로 다양하게 변주되며 깊은 울림을 줬고, 작가는 작품 속에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담으려 했다. 금강산이 열린 이듬해인 1999년 처음 금강산을 찾은 그는 20년 넘게 금강산을 오르내렸고 그 때 만난 장대한 폭포의 기세와 굴곡진 산세,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봉우리들은 그의 작품의 근간이 됐다.

서양화가 송필용 작가가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용미술관 초대전 이후 5년만에 광주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무각사(주지 청화스님) 로터스 갤러리에서 3일부터 11월23일까지 열리는 이번 초대전에서는 '역사', '흐름-소쇄', '흐름' 등 신작 28점을 만날 수 있다. "오랜만에 여는 전시회라 허접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다"는 송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폭포, 바위, 물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갤러리에 들어서기 전 전시 초대장처럼 계단에서 만나는 작품은 푸른 빛의 굽긴한 바위가 화면 아래 버티고 있는 '푸른 역사'다. 다양한 색감의 변주와 함께 두터운 붓질이 인상적인 작품에선 강인한 정신이 느껴진다.

"전시에서 나온 '역사' 시리즈는 역사라는 거센 폭포수를 건디는, 민중이라는 견고한 존재를 바위로 형상화했습니다. 거친 마티에르로 에너지를 생생하게 표현했어요. 폭포수를 맞으면서도 흔들림없이 살아가는 게 민중이고, 그게 삶의 힘과 에너지이며 역사의 힘이라고 생각했죠. 또 기존 작품보다 바위의 크기를 키워 존재감을 강화한 것도 전시작의 특징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작업해온 '땅의 역사'의 집합체가 바로 흔들리지 않는 폭포수 아래 바위입니다."

전시작들에선 기존 작품들보다 더 거칠고 야생적인 기운이 느껴지며 화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담겼다. 그의 작업 방식은 독특하다. 하얀 캔버스 위에 어둡게 색을 발라 기초 공사를 하고 물감덩어리를 두텁게 올린 후 문지르고, 붓칠하고, 긁는 과정을 반복하는 그의 작품에서는 강한 회화의 맛이 느껴진다. 작가는 "회화의 근본, 근원적 회화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덧붙였다.

전시장에서 강한 인상을 주는 작품은 블랙으로 작업한 '흐름-소쇄' 시리즈다. 검은색 바탕과 자유롭게 떨어지는 흰색 폭포가 어우러진 이 시리즈는 유화 물감 대신 아크릴 물감을 사용했고 작품에 다양한 느낌을 주기 위해 바탕 작업을 장시간 진행했다.

"폭포 줄기는 치유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담양에서 23년간 작업하고 지금도 광주 작업실을 오가는데 거기에서 배운 게 바로 작품 제목이기도 한 '소쇄(瀟灑)'입니다. 작품에 맑고 깨끗한 기운을 담아내고 싶다는 마음이지요. 제가 즐겨 그리는 물은 생

명의 근원이고 사유의 흐름입니다. 강이든, 바다든, 개울이든 인간의 희로애락을 느끼게 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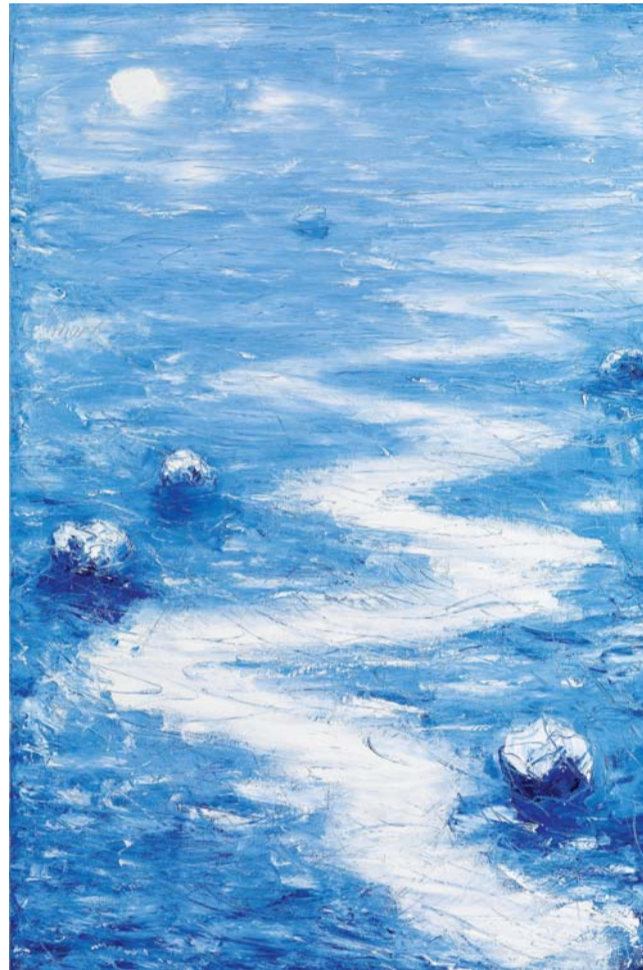
그가 중점적으로 작업한 또 다른 시리즈 '흐름'은 좀 더 자유로운 붓터치가 눈에 띈다. 다양한 청색과 흑백이 어우러진 만물상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표현한 작품, 그가 '마음의 산수'를 담았다고 설명한 작품도 흥미롭다. 작가는 붓질의 흔적과 두텁게 올라온 물감을 굵어낸 흔적들을 의도적으로 강조, 물의 흐름과 봉우리의 자유로움을 강조했다.

전시 열리는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는 이번 전시와 맞추어 어울린다. 건축물이 바깥 배경을 안으로 끌어들이듯 유리창 밖으로 푸른 대나무 숲이 바로 내어다 보이는 갤러리에서 만나는 작품은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전남대학교 미술교육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한 송작가는 지금까지 22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제2회 광주미술상을 수상했다. 현재 광주일보에 연재중인 최진석 철학가의 '새말 새 몸짓' 삽화 작업도 맡고 있다.

개막식 3일 오후 6시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송필용 작 '흐름'



신작 '흐름-소쇄' 앞에서 포즈를 취한 송필용 작가

손현덕 매경 대표이사전무 에세이집 '筆洞情談' 펴내

"저는 개인적으로 종종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저에겐 일종의 연결이었습니니다. 손편지가 몇 편 책 속에 등장하는 것도 그때문입니다. 그런 열렬 작업에서 제가 느낀 것들을 다소 부끄럽긴 하지만 여기에 글로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일부 글들은 그야말로 '잡문(雜文)'입니다. 후배들과의 사사로운 이야기도 있고, 어디 여행 가서 느낀 단상도 있습니다. 저의 정신세계가 온갖 잡다한 것들로 이뤄져 있어서 그런지 정말 잡문들이 많습니다. 그냥 이런 글들도 부끄럽지만 햇빛 쬐어주고자 내보냅니다."

손현덕 매일경제 대표이사전무가 에세이집 '筆洞情談'을 펴냈다. 모두 41쪽의 글 가운데 19개는 신문에, 주간지에, 인터넷 등에 썼던 걸 재가공한 것이며 22개 쪽지는 '저수지'(컴퓨터 폴더)에 담겨놓았던 글이다. '베어커와 사파이어', '교도소로 보낸 편지', '의사 이국중', '숲에서 길을 잃다', '세월호 사태와 비즈로셀 화재' 등 일상에서 느낀 단상이나 시사적인 내용 등 다양한 분야의 관심사를 특유의 담백한 문체로 풀어낸다.

저자는 "과거 발표된 글이나, 컴퓨터 폴더에 저장된 글들이나 이런 글들을 모아서 읽어보는 것은 절로 겸손해지는 일이고, 가끔은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라며 "당시 글을 쓸 때는 제법 호기롭게 같았으나 이제와 보면 참 많은 흠결과 모순이 드러납니다"고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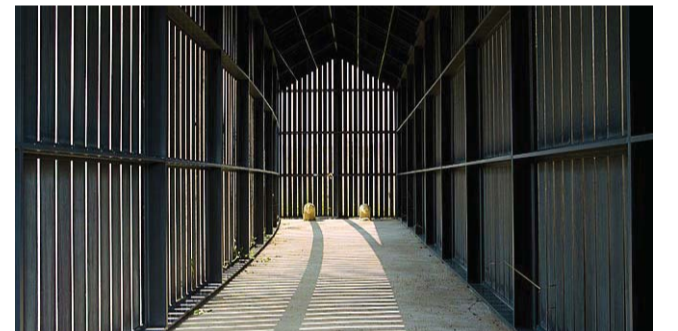
저자는 기자생활 하면서 부고 기사에 남다른 애정을 가졌다. 이번 책의 시작을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으로 시작하게 된 이유는 그 때문이다. 소설의 주인공은 모범생이고 일 잘하는 판사였으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데 톨스토이는 그의 삶을 끔찍하다고 여긴다.

작가는 소설을 통해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던진다. 일에 매몰돼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반 일리치의 모습은 일정 부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 겹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극장 6~7일 관객과의 대화

'이타미...' 정다운·'동물, 원' 왕민철 감독



'이타미 준의 바다'

광주극장이 화제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감독들과 관객과의 만남을 추진한다.

먼저 2만 관객 돌파를 목전에 둔 웰메이드 건축 다큐멘터리 '이타미 준의 바다'를 연출한 정다운 감독과의 대화가 6일 오후 7시20분 영화 상영후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이타미 준의 바다'는 디아스포라 건축가 이타미 준의 삶을 섬세하게 따라가는 영화로 이날 관객과의 대화는 유우상 교수(전남대 건축학부)의 진행으로 정다운 감독과의 대화 및 Q&A 시간으로 이루어진다.

5일 개봉하는 '동물, 원'은 울타리 뒤 보이지 않는 세상, '반야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동물원의 야생동물들과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의 진지한 일상을 담아낸 감성 다큐멘터리다. 제10회 DMZ국제다큐영화제 '젊은 기러기'상을 수상했으며 세계 3대 다큐멘터리 영화제로 손꼽히는 '2019 핫독스 국제다큐멘터리 리얼화제'에 공식 초청됐다.

7일 오후 3시 '동물, 원' 상영 후 열리는 관객과의 대화는 왕민철 감독과 광주 우치공원 동물원을 비롯해 대관령 목장, 유기동물 보호소 등에서 활동중인 20여 년 경력의 베테랑 수의사이자 야생동물 전문가인 최중욱 수의사가 함께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2019 서구청소년어울림마당'

7일까지 청소년셀러 20팀 모집

광주서구청소년수련관이 '2019 서구청소년어울림마당'에서 활동할 청소년 셀러를 모집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7일까지이며, 14~2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손셀러(핸드메이드 물품 판매) 10팀, 스토리셀러(중고물품 판매 10팀) 총 20팀을 모집한다.

판매수익금의 10%는 백혈병소아암 환자를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된다. 신청은 서구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서구가 주최하고 서구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21일 오후 5~8시 마재근린공원에서 '달빛야시장'을 주제로 열린다.

청소년 셀러들의 판매 부스뿐 아니라 청소년 버스킹, 먹거리, 체험마당(양초만들기, 타로운세 보기 등) 등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바히르챔버오케스트라 세번째 정기연주회

9일 금호아트홀...첼로 김민수·소리 심예은



바히르챔버오케스트라가 오는 9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금호아트홀에서 세 번째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바히르(Bachir)는 히브리어로 '구별된 자', '선택된 자'를 의미한다. 바히르챔버 오케스트라는 찬양 선교를 목적으로 지난 2014년 창단됐다.

광주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전문 음악인들로 구성됐으며, 2014년 팔라우, 상하이, 온주를 시작으로 2015년 마닐라, 2016년 카트만두, 2017년



지휘자 박문경

캄보디아 시엠립에 찬양 선교를 다녀왔다. 국내에서는 목포 달리도교회, 태영21병원 등에서 찬양연주를 열었으며 5회의 채용콘서트도 개최했다.

박문경의 지휘로 김민수의 첼로와 소리 심예은의 협연, 플룻 이주혜, 오보에 김영주·송용주, 클라리넷 이은영, 호른 이윤범·박남미, 바이올린 박강현·이준성·황은홍·윤재인·김현아·정다정·이준·이기원·박혁진·박주양, 비올라 양신애·조수영·최미현·심선영, 첼로 이후성·조은강·서지수, 더블 베이스 류수경, 피아노 박강준·김경혜·정성영, 드럼 김민호가 연주한다.

첼리스트 김민수가 '하이든 첼로협주곡' 다장조를, 소리 심예은이 춘향전 중 '어사출포'를 협연한다.입장권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